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조남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다음 주일 2부 대표기도는 권용기 집사님입니다.
3.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봄맞이 전교인 아우회'를 5월 12일(주일)에 가집니다. 사전 일정 잘 조성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4. 2024년 필리핀 단기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단기선교 일정은 7월 8일(월)~13일(토)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박성근 장로님(010-5575-7702)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마감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5. 교우동정 : 김경미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신동기 집사님의 장인)께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남은 장례 일정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5월 월삭새벽기도회는 5월 1일(수)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가집니다. 5월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하늘문의 만나> 5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 가셔서 묵상용·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4월 28일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예배기도(2부)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가정의 주일	조남희 집사 가정	전교인 아우회	강숙여 권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등)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힘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3번(시편 4:1-8)	다같이
*경배찬송	3장(통 2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	송 304장(통 404장)	다	같이
대	표	기	도 1부인도자, 2부신석장로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빌 4:4	인 도 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 헌 기 도		인 도 자
말 씬 선 포	‘기쁨의 능력’	허영진 목사
마 무 리 기 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6:24-28 '십자가의 길'(2)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봄의 단상

아침 하늘이 모처럼 푸릅니다. 흰 구름까지 춤을 춥니다. 마치 초여름 날씨처럼 햇볕이 짹짹해 눈이 부십니다. 땅을 만져 보니 보드라운 흙살이 손끝을 간질입니다. 4월을 지나며 부슬거리며 내린 봄비 덕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들뜬 마음으로 새벽기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침 산보를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신록의 내음이 실려 왔습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한다는 절기 '곡우'도 지나갔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살포시 내린 여린 나뭇잎들이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둥오리들은 떼 지어 물살을 가르고, 왜가리는 강가 돌무더기에 자리 잡아 아침 뗏거리를 찾는지 물속을 훑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벗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50여 분을 걸었습니다. 반환점인 조안면 초입에서 이제는 거꾸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로 약간 질척거리는 땅을 밟을 때면 땅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들이 흔적으로 남겨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산하의 땅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내가 딛고 온 발자국을 유심히 되밟고 따라가 봅니다. 앞만 바라보고 올 때는 몰랐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야말로 비틀거리는 발자국을 보면서 왜 이렇게 걸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득 살아온 삶의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지나온 삶을 지금 질척한 땅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듯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 발자국이야 어찌 되건 관심이 없습니다. 비뿔비뿔한 걸음걸이인 줄도 모릅니다.

인생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물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바른 길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극한 고통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생명은 고통과 죽음을 겪은 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창을 열어 깊숙이 예수를 모셔 들어 비틀거리는 삶의 흔적을 예수로 인해 똑 바른 삶의 흔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날마다 도타워지는 새 물의 봄별에 하필이면 참기 힘든 춘곤증이 찾아오는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